

## 일본정부 TPP 참가를 둘러싼 논의 본격화

간 총리가 ‘TPP 참가 검토’를 표명한 이후, 일본 내에서 TPP 참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하지만 농림수산성과 여당내 반대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EPA 기본방침을 통해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됨.

- 10월 1일 간 총리가 ‘TPP 참가 검토’를 표명한 이후, 일본에서 TPP 참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sup>1)</sup>
  - 11월 13~15일 동안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TPP 관련 국가들이 11월 9일 사무레벨 협의를 개최
  - 100%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는 TPP 참여에 관심 표명국가는 일본, 캐나다, 필리핀, 중국 4개국으로 전해짐.
- 주요 성청별로 TPP 참가의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함.<sup>2)</sup> 그러나 이러한 시산결과는 각 성청별로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남.(10/27)
  - 내각부는 실질 GDP가 TPP 불참시 0.13~0.14%(0.6~0.7조 엔) 감소하고, 참가시 0.48~0.65%(2.4~3.2조 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06년 5월에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4개국 간 자유 무역권을 지칭함. 2009년 11월 오바마 정권이 TPP 참여의사를 표명한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세함에 따라 현재 9개국이 무역·투자 관련 규정을 교섭 중임.

2)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EU, 중국과 EP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여, 2018년도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시산한 것임. 한편, 농림수산성은 쌀, 보리, 쇠고기 등 거의 모든 일본산이 고급품을 제외하여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TPP 불참시 2020년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기계 3개 업종에서 실질 GDP가 1.5%(10.5조 엔) 감소하고, 고용이 81.2만 명 축소할 것으로 시산
- 농림수산성은 농산물 관세철폐로 자급률이 하락(40% →14%)하고, 농산물 생산규모가 매년 4.1조 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일본 정부 및 여당 내에서도 TPP 참가 여부에 대해 반대론이 강한 가운데, 경제계가 TPP 참가를 촉구하고 있음.

- 내각부 平野達男(Hirano Tatsuo) 부대신은 농업문제를 비롯하여 우정성 등 금융자유화, 쇠고기 수입제한 등의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TPP 참가표명이 간단치 않다고 언급
-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오자와를 중심으로 농업보호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당내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편, 경단련 米創弘昌(Yonekura Hiromasa) 회장은 “TPP에 불참할 경우 일본만 세계경제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정부는 11월 5일 EPA 기본방침을 통해 TPP 참가와 관련된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11월 1일 TPP 참가를 위해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농정개혁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방침을 발표함.
- 금번 EPA 기본방침에는 미국, EU 등 주요 무역상대국 및 신흥국과의 EPA, 동아시아에서의 광역 EPA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서의 EPA 전략 수립과 농산물시장 개방과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0.10.27).「環太平洋經濟協定めぐり論議」.

日本經濟新聞(2010.10.27).「環太平洋經濟協定試算乱立」.

日本經濟新聞(2010.10.28).「TPP 参加農業改革カギ」.